

##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연경\* · 임정하\*\*1)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아동학 전공\*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 Hope as a mediator

Oh, Youn-Kyung\* · Lim, Jung-Ha\*\*1)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hope of adolescents. Four hundred thre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multi group analysis. The average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adolescent group compared to female adolescent group. Adolescents' hop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proposed model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a function of gend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could be improved by reducing level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nhancing adolescents' hope.

**Key words:**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희망(Hope), 청소년(Adolescent)

---

1) 교신저자: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ul, 136-701,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7, Fax: 02-927-7934, E-mail: jhlim@korea.ac.kr

2)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17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I. 서론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밖 환경이자 심리사회적 발달의 장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업과 각종 활동을 수행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 등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발달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적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적응이란 청소년이 학교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Bierman, 1994; Kim, 1993; Moon, 2002). 구체적으로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학업에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하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Lee & Kim, 2008).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이후 시기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원만한 적응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Cho & Choi, 2015; Kim & Lim, 2013), 가족 간의 의사소통(Kwon & Kim, 2011)과 갈등(Kang & Moon, 2005), 교사의 태도(Chang & Ahn, 2015; Kim & Yun, 2004) 등이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Aunola, Stattin, & Nurmi, 2000), 자아성취감(Jung & Khu, 2013), 성격 강점(Shoshani & Slone, 2013)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 중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개인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는 양육방식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하며,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Kim, 2016; Park & Lee, 2014). 청소년의 수행능력에 대한 지각이나 동기와 같은 인지적 특성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m, Jeong, & Hwang, 2013; Walls & Little, 2005). 나아가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 적응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Jeong & Oh, 2016; Seo, Lee, & Lim, 2012)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간의 통합적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이다(Barber, Stolz, & Olsen, 2005).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간섭하여 조건적으로 애정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와 Luyten(2010)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의도에 따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세분화하였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와 물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통제적 양육방식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취기준을 자녀가 따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통제적 양육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부적응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심리적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존재로서 기능하려고 하는 청소년 자녀의 욕구와 상충되는 양육방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다른 시기보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Collins, 2005). 선행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2015; Soucy & Larose, 2000).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공격성 및 비행행동과 같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행동문제와도 관련되었다(Hunter, Barber, & Stolz, 2015; Jang, 2015).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행 연구

(Choi & Yoon, 2016)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체감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체감 발달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가 자신의 수행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학교에서 더 적응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Park, 2014; Seo et al., 2012; Song & Choi, 2012). 이로 미루어보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및 동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희망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 동기적 상태로 (Lopez, 2009)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로 구성되어있다. 경로사고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며 주도사고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의지이다 (Snyder, 2002). 희망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Gilman, Dooley, & Florell, 2006; Ha, 2013; Kim & Ahn, 2016; You et al., 2008). 그러므로 희망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희망은 부모의 양육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Shorey, Snyder, Yang과 Lewin(2003)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애정적인 방식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희망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이들의 부모는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였으며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모의 지지적이고 합리적인 양육방식은 희망이 발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부모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희망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 (Snyder, 2000, 2002).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청소년의 적응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았고 희망은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Jeon, 2013). 또한 희망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매개하였고(Shorey et al., 2003)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청소년의 적응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dilla-Walker, Hardy, & Christensen,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희망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도 매개적 기능을 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아버지로부터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Park, Lee, Song, & Soenens, 2008), 자녀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 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Mantzouranis, Zimmermann, Mahaim, & Favez, 2012; Park, 2014). 다음으로, 청소년의 희망에 관한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희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rdar, Anić, & Rijavec, 2011; Kim & Ahn, 2016). 그러나 희망의 하위요인에 따라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Kang & Lee, 2012; Lim, Kim, Song, Na, & Tan, 2014).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또한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Ryu, 2015; Woo & Kim, 2013),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Lee, Park, & Kim, 2016; Lim, 2007; Lim & Chun, 2012).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희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

히, 기존 연구(Ahn, 2014; Ma & Son, 2014; Ryu, 2015)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봤는데 아버지의 양육방식 또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Ang, 2006)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의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지도할 때 청소년기 부모 자녀 관계와 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희망 및 학교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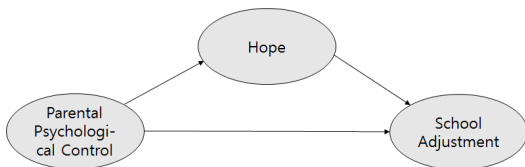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zed model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강원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남학생이 194명, 여학생이 209명이며 중학교 2학년이 105명(26.1%), 중학교 3학년이 100명(24.8%), 고등학교 1학년이 74명(18.4%), 고등학교 2학년이 124명(30.8%)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16.49세

(SD=1.20)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아버지: 60.3%, 어머니: 53.8%)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사무관리직(35.5%), 어머니는 주부/무직(41.0%)이 가장 많았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Soenens와 Vansteenkiste(2007)가 개발하고 Park과 Lee(2009)가 변안한 DAPC(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7문항으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9문항,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와 물리적·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가 행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측정한다. 예시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아버지(어머니)께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 내신다’ 등이 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취기준을 자녀가 따르게 하기 위해 행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측정한다. 예시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모든 것에서 최고일 때만, 나를 존중해주신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형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해당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과 Lee(2009)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부 의존지향 .89, 모 의존지향 .91, 부 성취지향 .95, 모 성취지향 .96으로 나타났다.

#### 2) 희망 척도

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와 동료들(1991)이 개발하고 Kang(2002)이 변안, Kim(2004)이 일부 수정·보완한 특성희망 척도(Trait Hop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2문항으로 경로사고 4문항, 주도사고 4문항, 중립 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로사고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복잡한 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주도사고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는 의지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형식으로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중립문항은 채점에서 제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004)은 척도 수정과정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전체 .82, 경로사고 .80, 주도사고 .71로 나타났다.

### 3)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Kim(2008)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38문항으로 학교공부 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교사 10문항, 학교생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공부는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와 학교공부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고 예시문항으로는 ‘학교 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등이 있다. 학교친구는 친구들과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며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등이 있다. 학교교사는 교사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을 측정하며 예시문항으로는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등이 있고, 학교생활은 학교 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형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항상 그렇다’ 3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Kim(2008)은 척도를 개발하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준거관련타당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전체 학교적응 .94, 하위요인 중 학교공부 .80, 학교친구 .89,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항의 이해정도 등을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9월,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지역의 연구대상을 표집하고자, 서울 및 강원도에 소재한 6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표집되었고,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하에 교실 내에서 설문지에 응답하였고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다수 문항의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403부(92.9%)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희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해 2단계 접근법 (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검증하였고, 모형 검증에 앞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모형의 경로 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으로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 III.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희망과 학

교적응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65, p<.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 중 학교교사 요인에서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t=5.08, p<.001$ ).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먼저,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학교적응 전체 및 각 하위요인( $r=-.28\sim-.12, p<.05$ ) 그리고 희망의 전체 및 하위요인( $r=-.19\sim-.11,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희망은 학교적응 전체 및 각 하위요인( $r=.27\sim.52,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62\sim1.45$ 이고, 첨도는  $2.66\sim4.42$ 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을 잠재변인으로 하고 이들의 하위요인을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고( $\chi^2_{(32)}=95.10, p<.001, TLI=.951,$

CFI=.965, RMSEA=.070)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계수가 .50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완전매개모형인 기본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대안모형 중 최종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도 차이가 1인 두 모형의  $\chi^2$ 값 차이( $\Delta\chi^2_{(1)}=12.68$ )가 임계값인 3.84보다 크게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이 유의하였으나 TLI와 CFI는 .95이상이고 RMSEA는 .07이하로 전반적인 적합도는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_{(32)}=95.10, p<.001, TLI=.951, CFI=.965, RMSEA=.070$ ).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Figure 2>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희망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계수는  $-.22(p<.001)$ 이고 희망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계수는  $.64(p<.001)$ 이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계수는  $-.19(p<.001)$ 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희망 변량의 5%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희망은 학교적응 변량의 50%를 설명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 간의 효과를 파악하고 부트스트랩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희망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22$ 이다. 희망에서

Table 1. Results of *t*-tests on study variables as a function of gender (*N*=403)

		Male ( <i>n</i> =194)	Female ( <i>n</i> =209)	<i>t</i>
		<i>M</i> ( <i>SD</i> )	<i>M</i> ( <i>SD</i>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DPC	1.76 (.69)	1.76 (.64)	-.02
	PAPC	1.62 (.79)	1.56 (.74)	.81
	MDPC	1.68 (.70)	1.74 (.71)	-.91
	MAPC	1.55 (.79)	1.59 (.82)	-.51
Hope	Pathway	3.72 (.64)	3.66 (.60)	.99
	Agency	3.45 (.68)	3.34 (.62)	1.68
	Total	3.58 (.58)	3.50 (.54)	1.52
School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1.67 (.53)	1.61 (.52)	1.12
	Peer relationship	2.21 (.54)	2.21 (.52)	.12
	Teacher relationship	1.82 (.60)	1.51 (.62)	5.08***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rules	2.02 (.53)	1.95 (.47)	1.36
	Total	1.94 (.45)	1.83 (.41)	2.65**

Note. P(M)DPC= Paternal(Maternal) 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P(M)APC= Paternal(Matern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 $p<.01$ .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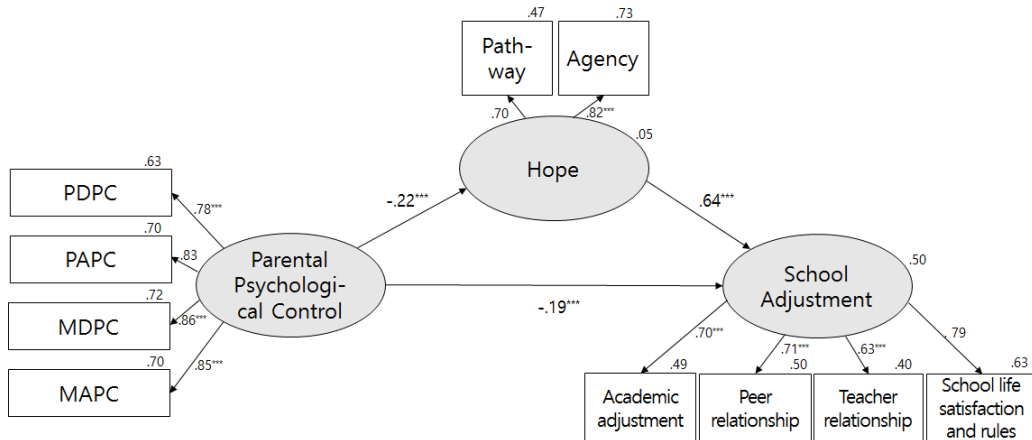


Figure 2. Final model

Note. P(M)DPC= Paternal(Maternal) 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P(M)APC=Paternal(Matern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 $p < .001$ .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64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19이고 간접효과는 -.14이며 총효과는 -.33이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희망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문제 1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 이러한 성차가 최종모형의 경로수준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남녀 청소년 두 집단 간에 측정도구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 간 같은 수준에 있는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남녀 청소년 집단의 경로계

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가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남녀 청소년 두 집단에서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과 경로계수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chi^2$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chi^2$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_{(3)}=5.89, p>.05$ ). 이는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적응 단일변인의 수준은 성차가 있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희망, 학교적응 변인들 간 관련성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95% C.I.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Hope	-.22	-	-.22	-
Hope → School Adjustment	.64	-	.64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School Adjustment	-.19	-.14	-.33	-.22~-.07

Table 3. Fit indices for parameter comparisons

	$\chi^2$	df	p	TLI	CFI	RMSEA
Metric invariance constrained model	163.138	71	<.001	.938	.951	.057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ed model	169.028	74	<.001	.938	.949	.057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희망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를 희망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남녀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hang, 2011; Park, 2014; Park & Park,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희망에서도 남녀 청소년 간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희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Brdar et al., 2011; Kim & Ahn, 2016)과 같은 결과이다. 희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과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희망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 특히, 학교적응 중 학교교사요인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사 요인에서 남학생의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기존 연구들(Song & Lim, 2015; Yu,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에게 교사가 의미있는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들며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적고 평소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a, 2014b). 그러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교사에게 고민상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Statistics Korea, 2016)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들은 교사를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 교사와 상담하

는 등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교사요인에서 남학생의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의 구체적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희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심리적 통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난 Chang의 연구(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심리적 수단을 이용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학업수행 및 대인관계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Park, 2014; Park & Park, 2015)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추구이라는 청소년기의 주요한 욕구가 수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상 독립심이 증가하는 시기로(Steinberg, 2001), 청소년은 자신을 부모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가 주체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하여 간접적으로도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가 엄격하게 통제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이 자신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고 이는 자녀가 이탈행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ark & Kim,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느낄수록 청소년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에서 적응적으로 생활한다는 연구결과(Padillar- Walker et al., 2011) 및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자신의 수행력에 대한 기대를 매개로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uang & Silbereisen, 2002)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 및 학교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지각은 부모-자녀관계라는 맥락에서 발달한다. 부모와의 관계를 신뢰할만하고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내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동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불안해하며 자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기 어렵게 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가 자기비난적인 태도를 갖고(Soenees et al., 2010) 자녀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통제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hek, 2007)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영향력의 크기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희망은 이들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자기수용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Song & Lim, 2015)와 유사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ong & Kim, 2013)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학교적응과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이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이 희망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가 희망을 발휘하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모가 자각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과 교과 학습 시간에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간 갈등의 한 양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소개하고, 심리적 통제의 기저에 있는 부모의 불안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희망이 학업과 학교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학교에서 교사 및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희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실천적 성격을 가지는 가정과 교과의 내용과 접목한다면 청소년들이 교실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부모의 보고도 포함한다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부모와 자녀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청소년기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발달함에 따라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기 긍정적 발달의 지표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개입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hn M-H (2014).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on: Mediating Role of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ger and Loneli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3), 737-75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g, R. P. (2006). Effects of parenting style on personal and social variables for Asi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503-511.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E. (2000).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289-306.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37.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s.), *Encyclopedia of Psychology* (p. 347). New York: John Wiley & Son.
- Brdar, I., Anić, P., & Rijavec, M. (2011). Character strengths and well-being: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In I. Brdar (Ed.), *The Human Pursuit of Well-Being : A Cultural Approach* (pp. 145-156). Netherlands: Springer.
- Collins, W. A. (2005). Parsing parenting: Refining models of parental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38-145.
- Chang K-M (2011). The influence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ir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243-261.
- Cho H-I (2012).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ope,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465-483.
- Cho Y-J & Choi H-I (2013). A Study on Effect of Parenting Practice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0, 47-70.
- Choi I-S & Yoon S-H (2016).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utonomy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Ego-Identity of Junior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8), 167-194.
- Gilman, R., Dooley, J., & Florell, D. (2006). Relative levels of hop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academic and psychological indicat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2), 166 - 178.
- Ha Y-S (2013).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Positive Psychology and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4), 2307-2325.
- Heo E-J & Oh I-S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3), 137-165.
- Hunter, S. B., Barber, B. K., & Stolz, H. E. (2015). Extending Knowledge of Parents' Role in Adolescent Developmen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8), 2474-2484.
- Jang A-M & Ahn D-H (2015). Influences of Parents' and Teachers' Psychological Environment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951-967.
- Jang Y-O (2015). The Effects of Parental Behaviors on Adolescent

- Overt Aggression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199-221.
- Jeon K-H (2013).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Cognitive Triad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M-K & Oh E-J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4(2), 83-93.
- Jung Y-W & Khu B-Y (2013). The Relative Effects on School Adaption of Personal Positive Trai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207-233.
- Juang, L. P., & Silbereisen, R. K.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cademic capability beliefs, parenting and school grades. *Journal of Adolescence*, 25(1), 3-18.
- Kang L-Y (200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unseling Process Hope Sc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M-H & Lee S-Y (2012). Influence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Journal of Future Oreinted Youth Society*, 9(4), 281-302.
- Kang Y-J & Moon J-W (2005). Family related factors'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1), 283-315.
- Kim H-S & Yun E-J (2004). The Effect of Teacher Behavior and Attachment Stability on School-related Adjustment in Adolescence. *Studies on Korean Youth*, 15(2), 93-115.
- Kim I-S & Hong H-Y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Subjective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53-76.
- Kim J-A (2016).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on the Parenting attitud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2), 303-326.
- Kim N-R & Ahn D-H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hope, humor,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Korean adolesc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987-1008.
- Kim T-H (2004).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M & Lim Y-S (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343-366.
- Kim Y-R (1993).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its antecedent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9, 5-113.
- Kwon J-H & Park H-H. (2014).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2), 55-73.
- Kwon Y-J & Kim Y-H (2011).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s' Self- Regulation on Online Game Overflow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99-121.
- Lee A-Y, Park B-J, & Kim S-Y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Control and School Life 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7(1), 61-71.
- Lee K-M & Kim M-S (2008). A Validation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27-40.
- Lim J-H, Kim K-M, Song J-E, Na Y-K, & Tan M-X (2014).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s on the school adjustment level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5(1), 29-57.
- Lim J-H & Chun J-S (2012).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169-190.
- Lim S-K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opez, S. J. (2009). Hope. In S. J. Lopez (Eds.), *The encyclopedia of positive psychology* (pp. 487-491).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 Ma E-A & Son E-J (2014).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need thwarting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5), 2035-2051.
- Mantzouranis, G., Zimmermann, G., Mahaim, E. B., & Favez, N. (2012). A further examin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APCS with French-speaki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5), 726-733.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a). 2014년 청소년백서.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b).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Moon E-S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23*(1), 153-167.
- Oh Y-H (2014). *Effects of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Hardiness Perceived by the Youth on Learned Helplessness-Focused on the Mediation of Smart Phone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Padilla-Walker, L. M., Hardy, S. A., & Christensen, K. J. (2011). Adolescent hope as a mediator between parent-child connectedness and adolescent outcom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6), 853-879.
- Park G-H & Lee J-M (2014).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4), 997-1013.
- Park H-J & Park J-H (2015).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efficacy on social anxiety in middle-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2*(3), 21-39.
- Park S-Y (2014).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Y & Lee E-G (2009).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parents of Korean adolescent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211-229.
- Park S-Y, Lee E-G, Song J-H, & Soenens, B (2008). The Effects of Two Typ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65-78.
- Park Y-S & Kim U-C (2010).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friends: With specific focus on self-efficacy,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6*(3), 385-422.
- Ryu E-S (2014).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Self regulatory Ability on th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Kyoungbuk, Korea.
- Seo S-N, Lee S-G, & Lim S-H (2012).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327-333.
- Song H-W & Choi S-Y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verty Level,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3), 651-672.
- Song J-E & Lim J-H (2015). Parental acceptance in relation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elf-acceptance as a mediating factor. *Studies on Korean Youth, 26*(4), 117-144.
- Song S-S & Kim P-H (2013).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Behaviors, Self-Efficacy, Goal

- Orient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8<sup>th</sup> Grad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2), 103-119.
- Shek, D. T.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1), 1-22.
- Shorey, H. S., Snyder, C. R., Yang, X., & Lewin, M. R. (2003). The role of hope as a mediator in recollected parenting, adult attach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6), 685-715.
- Shoshani, A., & Slone, M. (2013). Middle school transition from the strengths perspective: Young adolescents' character strengths, subjective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163-1181.
- Sim M-Y, Jeong S-H, & Hwang S-K (2013). The Effect of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on School Adapt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6, 99-122.
- Snyder, C. R. (2000). Genesis: The birth and growth of hope.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25-3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_\_\_\_\_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 (Cha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SRCD), Boston, MA.
- Soenens, B., Vansteenkiste, M., & Luyten, P. (2010).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17-256.
- Soucy, N., & Larose, S. (2000). Attachment and control in family and mentoring contexts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125-143.
- Statistics Korea (2016). 사회조사.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 You, S., Furlong, M. J., Felix, E., Sharkey, J. D., Tanigawa, D., & Green, J. G. (2008). Relations among school connectedness, hope, life satisfaction, and bully victimiza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45(5), 446-460.
- Yu J-A (2016).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Walls, T. A., & Little, T. D. (2005). Relations Among Personal Agency,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23-31.
- Woo S-K & Kim K-Y (2013).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Gender, School Level, Test Anxiety, and Depression.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32(2), 165-190.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울과 강원지역의 중·고등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t검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수준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적응 중 학교교사 요인에서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여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희망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희망 수준이 낮았고, 희망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적응력도 낮았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희망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희망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2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2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8월 23일